



글. 윤진석

잠실 한솔병원/대장항문외과 과장

치질, 이야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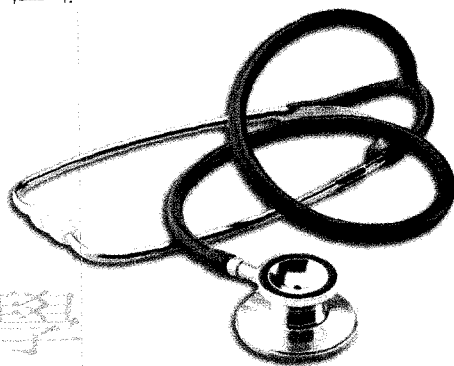
잘해야 건강하다

먼저 치열이란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치열이란 항문에 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심한 변비로 인해 딱딱한 변이 배출되면서 항문이 찢어지는 것이다. 때때로 오랜 기간동안 무른 변이나 자주 설사를 하는 분들에게도 잘 생긴다. 젊은 여성에게 많고 특히 다이어트하는 여성에게 많다. 열상은 주로 항문 뒤쪽(꼬리뼈 쪽)으로 잘 생기고 여성에게는 항문 앞쪽에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증상은 배변 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심하고 따라서 배변을 의도적으로 참게되어 변이 더 딱딱해지고 다시 배변 시에 항문이 찢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치료는 급성인 경우 변을 무르게 해주고 온수 좌욕을 하며 항문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약제를 쓰기도 한다. 증상이 2~3개월 이상 되면 열상의 깊이가 깊어져 궤양에 이르고 궤양 주위에 작은 혹 덩어리가 같이 생겨 치핵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는 잘 듣지 않아 내괄약근 절개술(항문을 살짝 넓혀주는 수술)이나 심한 경우 항문 성형술 등의 수술을 해야 한다. 치열을 예방하는 길은 변비나 설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음식 섭취량이 적어 변이 너무 딱딱해지므로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수이며 자주 무른 변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엔 장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밝혀 치료해야 한다.

다음은 치루에 대해 알아보겠다. 치루란 항문 속 치상선이란 주름에 있는 항문소관 분비기관에 염증이 생겨 항문 주위의 괄약근을 뚫고 항문 주위 피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급성기엔 농양을 형성하여 흔히 '종기'로 오인되고 만성기에 들면 항문 옆에 딱딱한 고름 길이가 있어 항상 농양이나 피가 흘러 나오는 질환이다. 생기는 원인은 해부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항문소가 깊고 변이 이곳에 잘 끼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자에서 흔하다. 또한 변비보다는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서 더 잘 생긴다.

치루는 수술적 치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드물긴 하지만 단순한 치루가 아닌 복잡한 치루인 경우 재발률도 높으며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술 후 괄약근의 손상으로 변실금이 올 수도 있어서 반드시 경험 있는 항문 전문의에게 치료 받기를 권한다. 또한 치루는 결핵, 크론씨병, 백혈병, 성병 등이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원발구(항문 속의 염증 원인)와 속발구(항문 밖의 이차적인 고름 구멍)를 찾아 염증 통로를 완전히 제거하면 되는데 수술 후 통증은 거의 없지만 치유되는 기간이 4주에서 8주로 길어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치료를 게을리 하면 염증이 마치 나무 가지를 치듯이 퍼져나가며 항문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드물게 항문암으로 발전한다는 보고가 있어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 소양증, 항문 콘딜로마 등의
항문 양성 질환을 통칭하는 말이다. 지난 호에서 가장 흔한
항문 질환인 치핵을 알아보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다른 치질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生活醫學

항문 소양증은 말 그대로 항문 가려움증
으로 주로 밤에 심하게 가려우며 여름에 더 잘생
기고 남녀에게 비슷하게 생기는 질환이다. 자주
재발하고 심한 경우는 사회 생활에 지장을 줄 정
도로 난치성 질환이다. 생기는 원인에 따라 원발
성과 속발성으로 나뉘고 속발성은 치핵, 치루, 치
열, 직장탈 등 원인이 되는 질환이 항문에 있어
이로 인해 항문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으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항문소양증도 치유된다. 원발성
은 이런 이유없이 생길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 항
문소양증의 약 70~80%는 원발성 소양증이다.
원발성 소양증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커피,
단음식, 자극적 음식, 유제품, 술 등의 음식이
원인이라 설도 있고 정신적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설도 있다. 또는 배변 시 완전히 처리 안된 분
변이 항문 주위에 잔존하다가 가려움증을 일으킨
다는 설도 있다. 이유가 어떻든 항문소양증 환자
들은 말 못할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고 치료되었
다가도 금새 다시 재발하는 양상을 보여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조차 적잖이 고민스러운 질환이다. 일
반적으로 항문이 가려우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가
게 되고 이로 인해 이차적 손상을 받은 항문 피부
에서 분비물 등이 분비되면 더욱 가렵게 되는 악
순환이 반복된다. 치료는 항상 항문을 청결하게
하되 세정제나 비누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다. 또한 너무 자주 항문을 세척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키니 하루 1~2회 정도가 적당하다. 세척
후 항문 주위의 수분을 마른 수건으로 누르듯이
없애고 남은 수분은 드라이기 등을 사용해서 완전
히 건조하게 한다. 파우더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한 음식류는 피하고 그래도 증상이 호전 되지
않는 경우는 대장항문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한
다.

항문 콘딜로마는 항문에 생긴 사마귀를
말하며 바이러스로 인해 생기고 성 관계나 접촉
에 의해 전염되어 성병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에서는 항문 성교가 흔하여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나라에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증상은 거의 없고 어느 정도 혹의
크기가 자라야 본인이 느낄 수 있게 되며 치료는
절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재발이 잦고 아주 광
범위하여 항문 협착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사 요
법이나 국소 도포요법을 쓸 수 있다.

이상 항문에서 흔히 있는 치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항문 질환은 적당한 때에 적절한 치
료를 받으면 큰 통증 없이 쉽게 치료할 수 있고
대장 직장암도 초기에 찾아낼 수 있다. 일반인들
이 이런 항문 질환을 모두 감별하여 병원을 찾아
오기는 어렵겠지만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
다.